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인생 50년 축하연

‘한국방송역사에 의미 있는 기록과 전례典例를 남기다’

아나운서클럽 · 연합회 공동주최, 전·현직 아나운서와 각계 인사 300여 명 참석



▶ 김동건 아나운서는 손녀 김서영 양을 품에 안고 후배 아나운서들과 사진을 찍으며 매우 행복해했다.

5월 31일 63컨벤션센터 주니퍼 룸에서 개최 손님수, 김병찬, 정세진, 손정은, 서현진 진행 한국 방송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획이 그어졌다. 보도, 교양, 예능, 기획 특집 등 방송 전 영역에서 편안하고 품격 있는 진행으로 국민 아나운서로 자리 매김한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인생 50년 축하연이 (사)한국어나운서클럽(회장 김동건)과 한국어나운서연합회(회장 신동진) 주최로 5월 31일 오후 6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주니퍼 룸에서 열렸다.

축하연에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과 김봉균 (주)델타에어 에이전시 회장 등 친지, 김동길 박사와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 학계,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정계, 전경련 회장을 지낸 강신호 동아계약 회장 등 재계, 김규 전 동아방송 상무 등 문화계, KBS 사장을 지낸 홍두표 jbc 회장 등 방송계, 가수 이미지 씨 등 연예계 인사까지 각계각층의 귀빈 160여 명과 아나운서클럽 황우겸, 강영숙, 전영우, 전은덕, 박종세 고문을 비롯한 선 후배 아나운서 1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이 방송을 시작한 해인 1963년에 출생한 후배 아나운서 김병찬 회원과 KBS 입사 동기

인 손범수 회원, 그리고 KBS 정세진, MBC 손정은, 서현진 아나운서가 공동 진행한 축하연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아나운서클럽 전영우 고문의 축사, 신동진 연합회장의 기념패 증정과 김동건 회장의 감사 인사, 박현태 · 홍두표 전 KBS 사장과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의 건배사, 현역 아나운서들의 직격 인터뷰 등으로 펼쳐졌고, 주최 측은 행사 후 준비위원회에서 발간한 159쪽 분량의 기념책자를 참석자들에게 선사했다.

1938년 황해도 사리원 출생의 김 회장은 연세대 교육심리학과 졸업반이던 1963년 3월 동아방송(DBS)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래 1964년 9월 중앙텔레비전(TBC)을 거쳐 1973년 3월부터 KBS 방송위원으로 재직하며 ‘뽕뽕이 박사’, ‘명랑백화점’, ‘스타탄생’, ‘우리들 세계’, ‘뉴스파노라마’, ‘이산가족찾기’, ‘11시에 만납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 한국인’을 비롯해 22년째 가요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6월 5일 열릴 예정이던 클럽 정례 모임은 축하연으로 대신했고, 3분기 모임은 8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반에서 개최된다.

관련 기사 2면

방송과 출간 사업 등으로 바른말 지킴이 한 세대

KBS 한국어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전영우·이규항·김상준 전 실장 박갑수·이현복·이주행 전 자문위원에 감사패 수여

4월 23일 KBS 공개홀 로비에서 기념식 개최 KBS 한국어연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KBS 아나운서실(실장 김홍수)은 4월 23일 오후 3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어연구회 3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5시 30분부터 KBS 라디오 공개홀 로비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과 KBS 김승중 감사, 이병혜 이사, 그리고 아나운서클럽 강영숙 고문, 김동건 회장, 김규홍 · 박찬숙 · 이계진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박영웅, 원중배, 원창목, 이세진, 이혜옥, 전우벽, 황량, 황인우 회원 등이 참석한 기념식은 김홍수 KBS 한국어연구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외빈들의 축사와 격려사, 성기영 한국어연구부장의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영우, 이규항, 김상준 전 실장과 자문위원을 지낸 박갑수 · 이현복 서울대 명예교

관련 기사 7면



▶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홍수, 송향근, 서상기, 유진룡, 김환영, 김승중 KBS 감사, 김기현 의원, 조해진 의원, 민현식, 김상준, 이규항, 전영우, 이주행, 이현복, 박갑수

수, 이주행 중앙대 명예교수 등 6명이 KBS 한국어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공로로 김환영 KBS 사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KBS 한국어연구회는 1983년 4월 23일 발족 이래 바른말 고운말 방송과 한국어상담전화(02-781-3838) 운영, 바른 우리말 사용설명서 출간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한·중 아나운서 심포지엄

4월 23일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개최

아시아 방송 콘텐츠의 선진화를 위한 한·중 아나운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4월 23일 양천구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 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어나운서연합회와 한국전파진

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는 차양신 전 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신동진(MBC) 연합회장을 비롯한 국내 아나운서 40여 명과 중국 JS 상하이미디어그룹(SMG) 소속 아나운서 5명이 참가했다. 이날 양국 아나운서들은 한·중 아나운서의 위상과 역할 비교연구 라는 주제로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경성방송국 자리 첫 방송터 기념식 개최

한영섭 방우회장 “방송 발전에 토대를 닦은 한국 방송의 발원지 잊지 말자”

호출부호 JODK ‘첫 방송터’ 기념행사가 (사)한국방송동우회 주최로 4월 27일 오전 11시 경성방송국 자리인 서울시 중구 정동 1번지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영섭 방우회장, 조옥래 문공회 회장, 정근춘 KBS 사우회 회장을 비롯해 아나운서클럽 강영숙, 전영우, 박종세, 최만린 고문과 김규홍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이형균 편집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영섭 방우회장은 기념사에서 “항일 단파방송이 있었던 이곳은 방우회의 마음의 고향이다. 개국 당시 우리말과 일본어가 2:8로 편성되었

지만 아악, 동요 방송을 일본에 역증계까지 했다. 방송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지금, 그 토대를 닦은 한국 방송의 발원지인 첫 방송터를 잊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유허비를 제작한 조각가 최만린 고문은 “1987년 우리 마음의 말뚝을 이곳에 세웠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마음은 남을 것이다. 하루 빨리 한국방송역사박물관이 세워져 그 안에 ‘유허비’가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우회는 1987년 유허비 제작 후 매년 봄 덕수초등학교에서 첫 방송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여기에 그의 인생과 방송의 숨결이 있다

우리나라 최장수 ‘국민 아나운서’ 마이크 반세기의 궤적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인생 50년〉은 기사스크랩을 바탕으로 관련 인물 인터뷰를 담아 엮은 책이다. 강제형(MBC) 아나운서가 책임 편집을 맡아 2개월에 걸친 자료 조사 후 취재 · 편집을 보름 만에 끝내고 짙은 선물로 축하연 당일에 공개했다.

‘동아방송 아나운서 강습생 합격자는 3월 13일 상오 9시 동아방송국에 출두하기 바랍니다.’ 라는 1963년 3월 12일 동아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김동건을 아나운서로 출두시킨’ 전영우 고문과 TV 아나운서의 길을 열어준 박종세 고문, 동아방송 선배 아나운서였던 성선경 동천모자 대표, 친 구인 윤영석 SRM 컨설팅 회장과 유홍수 전



책임편집 강제형 MBC 아나운서

국회의원, 연세대 후배 김한중 차병원그룹 회장 등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3월 중순 열린 축하연 준비위원회 회의 중 김 회장이 50년간 진행했던 전체 프로그램 목록만으로도 한국방송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기념책자는 5년간, 스승인 고려대 김민환 교수의 저작 아나운서 임택근(나남) 발간에 참여했던 강제형 아나운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아나운서는 제작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비밀리에 진행한 탓에 적 극적인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하지 못 해 이십 다며, 그 아쉬움은 책 후 기(後記)에서 밝혔듯이 허술한 대목은 김 고 성 긴 부분은 보낸 역자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그 정신과 교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제25주기 장기범 아나운서 추모식 공식 행사는 이번으로 마감

시대의이름을가슴으로식이신 은둔의지사/산불을학처럼 사신 위대한 상식인/방송의 한시대를 품어하시며 모든 방송인의 시교가 되신 존엄한 선비/그러나 달과 술을 사랑하셨던 낭만인/당신은 한국의 영원한 아나운서!’

4월 30일 인천 장기범 아나운서 25주기 추모식이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광수, 김광일, 김규홍, 김경숙, 김상준, 김선동, 김성호, 김수용, 김승한, 김영소, 김영우, 박경환, 박영웅, 박용호, 배덕환, 서병주, 안평선, 윤영중, 이계진, 이규항, 이근배, 이세진, 이연영, 이은재, 이장우, 이장춘, 이팔용, 이혜옥, 임국희, 정경래, 정근춘, 정도영, 정희준, 최선, 최홍목, 홍규표, 황인우 등 동료와 KBS 아나운서실 김홍수 실장, 성기영 한국어연구부장, 유지철 아나운서협회장 등 40여 명의 방송인이 참석하여 고인의 목소리와 자취를 다시 느끼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방송의 한 시대를 풍미한 아나운서이자

참된 언론인인 장기범 선생이 1982년 KBS 정년퇴임 후 칩거하다 1988년 3월, 향년 62세로 떠나시자 KBS 아나운서실 이규항, 이장우, 김승한 실장을 중심으로 선생을 존경하는 후배들이 1주기 묘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매년 추모식을 열어왔다.

그 후 2006년부터 정성어린 땀방울로 추모식을 이끌어온 이계진 아나운서가 강원도 도지사 에 출마하며 2010년부터는 이세진 집행위원장과 김성호 교수가 대신 추진해왔지만, 참석자 모두가 이계진 아나운서의 노고를 치하해 온 바이다.

이에 이계진 아나운서는 그동안 동참해준 방송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요즘 젊은 후배들이 고인을 뵈는 일이 없다고 추모식에 불참한다니 참으로 아쉽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열사를 뵈는 적은 없지만 그분들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존경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후배 방송인들이 훌륭한 선배의 업적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정신과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옥(전 KBS) 편집위원

특보 김동건 사나운서 방송인생 50년 축하연

“선배님들의 엄격한 교육과 ‘가요무대’ 덕분에 오래 할 수 있었다”

김동길 박사 “바위 같은 심지의 사나이가 禮로써 걸어온 아나운서 반세기 감격스럽다”
전영우 고문 “신중하고 담담하며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방송인생 50년! 부럽고 존경스럽다”

1부 행사

손범수(전 KBS), 정세진(KBS), 손정은(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는 신동진(MBC) 연합회장의 초대 인사와 이진(MBC) 아나운서의 약력 소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아나운서클럽 전영우(전 KBS-DBS-KBS) 고문의 축사, 기념패 증정과 답사에 이어 박현태, 홍두표 전 KBS 사장과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의 건배사가 행사의 의미를 보태주었다.

김동길 박사는 축사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는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禮’ 로써 아나운서 한 길을 걸어와 반세기를 기록했다. 그와 같은 제자를 둔 스승은 행복하고, 후배는 좋은 것이며, 선배는 자랑스럽다.”라고 운을 댄 뒤, 윤선도의 오우가 중 ‘바위’를 암송하며 바위 같은 심지의 한 사나이가 있다는 건담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1963년 당시 동아방송(DBS) 아나운서실장을 지낸 전영우 고문은 김동건 아나운서의 면모를 스케치 형식으로 소개했다. 1. 건강한 체력, 2. 탁월한 유머, 3. 능란한 인터뷰 기법, 4. 따뜻한 인정과 의리를 따르려는 열정, 5.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인 성품, 6.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담담한 어조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능력, 7. 다방면의 독서를 꼽은 뒤, 김동건 아나운서의 방송인생 50년이 부럽고 존경스럽다며 그 공을 김 회장을 내조해온 부인 김영진 여사에게 돌렸다.

신동진 연합회장은 반세기 내내 마이크 앞에 서며 국민의 사랑을 받은 김동건 선배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방송인생 50년 기념패를 드렸고 조정식·장예원(SBS) 두 신입 남녀 아나운서가 꽃다발을 증정했다.

1972년 김영진 여사와 혼인해 1남 1녀를 둔 김 회장은 아들인 프로 골퍼 주형, 서울에스모드 교수인 딸 자영 씨 가족이 함께한 축하연에서 다소 들뜬 어조로, “난생 처음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니 잘 안 된다. 아나운서 직종을 사랑하며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 50년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축하를 받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가요무대’를 맡으며 오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현태 전 KBS 사장은 건배사에서 ‘품격 있는 진행으로 가요무대를 빛나게 한 국보 아나운서’라고 치하했고, 홍두표 jtbc 회장은 ‘한결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10년은 더 마이크를 잡아주시기를 기원’했으며, 연세대 총장을 지낸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은 ‘연세대 동문을 세계적인 인물로 이끌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2부 행사

만찬 후 김병찬(전 KBS), 서현진(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연세대 후배인 테너 강무림 교수의 노래, 나폴리 민요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오’로 시작해 가수 조영남 씨가 김 회장의 애창곡인 현재 명의 ‘고향생각’을 불렀고, 녹화 일정도 미룬 채 끝까지 함께하며 김회장의



의 향수 2중창을 선사해 대미를 장식했다. 먼저 김 회장의 방송을 보며 아나운서를 꿈꾸었다는 정용실(KBS) 아나운서가 직접 제작한 영상물 ‘한 아나운서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선배가 올곧게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었다며 존경심을 토로해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 데 이어 후배 아나운서들의 질문과 김 회장의 솔직한 답변이 흥미를 모은 직격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신입 시절이 궁금하다’는 서인(MBC) 아나운서의 질문에 김 회장은 ‘뉴스의 신빙성이 떨어지니 절대 더듬어서는 안 된다며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선배님들의 엄격한 교육 덕분에 50년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재미있는 방송은 무엇이었나?’는 최지해(OBS) 아나운서 질문에, 초창기에 맡았던 라디오 방송 광고 멘트 ‘여성의 냉증, 대하증엔 신신약품 0000’을 암송해 폭소를 자아냈다. ‘아나운서가 된 지 1년 반 됐는데 벌써 체력이 달린다.’라며 건강관리

비결을 알려달라는 전형운(tbs) 아나운서에게는 전국팔씨름대회 우승자도 제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원래 힘이 세다.’라고 말했다. 박재홍(CBS) 아나운서가 ‘말을 잘 하는 법’에 대한 3분 강의를 부탁하자, ‘타고

나야 하지만,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하고 짧게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이상형과 사느냐?’는 박지현(KBS) 아나운서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한 뒤, 34세 때 소개받고 1년 후 다시 만나 두 달 만에 결혼을 밀어붙였으며 그 동안 좀체 공개하지 않았던 가정사에 대해 들려주었다. 끝으로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외손녀 김서영(5) 양의 꽃다발 증정 순서에서 김동건 회장은 자상한 할아버지로서 행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한 아나운서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강영숙, 박종세, 전영우, 전용덕, 황우점 고문을 모시고 제7대 집행부 김규홍, 박찬숙, 이계진, 임국희, 차인태 부회장, 김상준 감사, 박민정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동순, 권혁화, 김명숙, 김병찬, 김상근, 김주환, 남궁미, 남선현, 남승자, 맹관영, 박경희, 박영웅, 박용호, 변순복, 성경환, 성대석, 손미나, 손범수, 진양해, 오미영, 원종배, 유협, 윤성원, 이규향, 이성화, 이세진, 이영혜, 이장우, 이정부, 이정옥, 이종태, 이지연, 이형균, 이해욱, 이후재, 성경환, 성선경, 전우벽, 전찬희, 정경래, 정영희, 정홍숙, 채영신, 최선규, 최은경, 표영준, 홍승택, 황량, 황인용, 황인우 등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홍수(KBS), 신동호(MBC), 김태욱(SBS), 김병훈(tbs) 등 각 방송사 아나운서실 책임자, 유지철(KBS), 신동진(MBC), 박광범(SBS), 김용신(CBS), 나선홍(tbs), 김성운(febc) 등 아나운서협회장, 대구에서 올라온 김영숙(KBS 대구) 아나운서 등 현역 80여 명이 함께 해 아나운서들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준비하면서 지난 3월 클럽회보에 특집 기사를 게재할 때 축하연 이야기가 나왔으나 김 회장님이 한사코 반대했던 터, 후배 아나운서들이 가요무대 녹화 일 점심에 회의를 소집해 미리 작성한 초대장 문구를 보여드리고 어렵사리 승낙을 얻어냈다. 이에 김규홍 부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이해욱, 박민정, 이형균, 황인우 등 클럽회보 편집진과 원종배 간사, 그리고 신동진 연합회장과 강재형, 박현우, 정용실, 윤지영 아나운서 등이 주축이 되어 수시로 각 방송사 아나운서실장, 협회장 등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장소는 현역들의 편의를 고려해 여의도로 정하고, 정용실 아나운서가 영상물 제작, 장

회보 편집진 주축으로 준비위원회 꾸리고 후배들과 힘을 합쳐 사상최대의 작전 수행

재형 아나운서가 기념책자 발간, 사진은 란 스튜디오(김재환 회장)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리고 ‘가요무대’ 연출자로 김 회장과 인연이 깊은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조의진 교수가 적극 나서 박스미디어(박해선 대표)를 연결하는 등 행사가 점점 틀이 잡혀갔다.

‘초청할 사람 고르기가 안 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김 회장님으로부터 명단을 건네받고 최화숙 회원까지 합세해 일일이 전화를 드려 주소를 받아 초대장을 띄웠다. 박찬숙 부회장과 의견을 협의하고 최종 확인 전화를 하며, 참석자의 면면으로 볼 때 저서 ‘사상최대의 작전(?)’을 수행해야 함을 절감했다.

마치고 나서 주인공의 승낙을 받는 것부터 귀빈들을 모시고 바쁜 후배 아나운서들과 행사를 치른 다음 회관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 카드를 발송하는 것까지, 결코 만만치 않았던 큰 잔치였다.

간단히 치르자고 해 250석 규모의 행사장을 잡아 놓았지만, 전화에 1,450여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김 회장님의 화려한 인맥으로 짐작건대 너무 협소할 것 같아 내심 걱정했는데, 아나나 다를까! 권혁화, 김명숙 회원과 KBS 26기 이지연 아나운서 등 현역들이 회장의 화려한 인맥에 장소 좁음까봐 내심 걱정 아나나 다를까 밀려든 하객에 진담 홍보회사가 할 일 우리가 했으니... 자위하기도

열심히 안내를 도왔음에도 신문 보도를 보고 찾아와주신 분들로 인해 좌석 배치에 차질을 빚은 건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끝내고나서야 ‘컴퓨터를 두고 좌석을 확인할 걸...’ 하고 후회했고, ‘홍보회사가 할 일을 몇몇이 해냈으니 그럴 만도 하지.’라며 자위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이 3시간 넘도록 끝까지 자리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음은 참으로 뿌듯한 일이다. 그건 전적으로 김 회장님이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챙기며 쌓아온 인덕과 풍부한 사회 경험으로 조율해주신 덕분이다. 아나운서들이 힘을 합치면 ‘품격, 재미, 의미가 어우러진 짜임새 있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아울러 선후배 아나운서에게 ‘한국아나운서클럽’이란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신 황우점 고문께 경의를 표하며,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기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직격 인터뷰

50년 방송 비결은? 신입시절 혹독한 훈련과 건강한 체력
말 잘하는 법은? 무엇보다 잘 듣고 짧게 말해야
가장 재미있었던 방송은? 여자 대하증 라디오 광고 멘트
지금 이상형과 사느냐? 그렇다!

테너 강무림 가수 조영남 축하 노래
김 회장 애창곡 ‘고향생각’ 과 이중창으로 ‘향수’ 불러
국보급 아나운서 등 찬사 쏟아져



▶테이블 뒷줄 왼쪽부터 아나운서클럽 황우점, 박종세, 전영우, 전용덕 고문, 차인태, 임국희 부회장, 성선경 회원, 강신호 동아제작 회장



▶테이블 뒷줄 왼쪽부터 김봉균 (주)델타에어 에이전시 회장,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 박현태 전 KBS 사장, 김규 전 동아방송 상무, 김동길 박사,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황인우(전 KBS) 편집장

축하선 미니 사진첩

김동길 마나운서 방송인생 50년



1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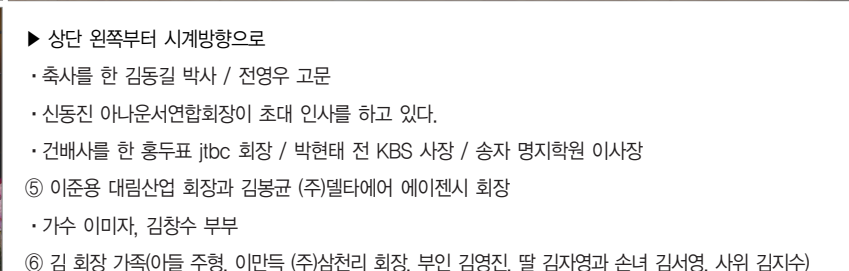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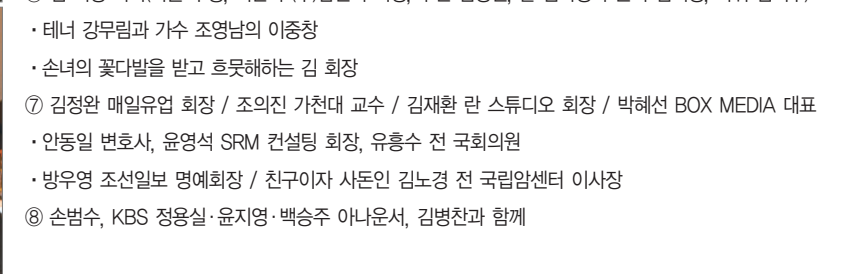
3



8



5



7



6

▶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① 1부 사회를 본 MBC 손정은, 손범수, KBS 정세진 아나운서
- ② 김규 전 동양방송 상무
 - MBC 이진, 임현주, 박연경, 차예린, 황선숙, 강재형 아나운서, 김규홍 부회장과 함께
- ③ 박찬숙 부회장, 전숙자 함께우리 상임이사, 김한중 차병원그룹 회장
- ④ 현역 아나운서와 직격 인터뷰 (김병찬, MBC 서현진 MC, KBS 박지현, CBS 박재홍, tbs 전형운, OBS 최지혜, MBC 서인)

▶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축하를 한 김동길 박사 / 전영우 고문
- 신동진 아나운서연합회장이 초대 인사를 하고 있다.
- 건배사를 한 홍두표 jtbc 회장 / 박현태 전 KBS 사장 /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
- ⑤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과 김봉균 (주)델타에어 에이전시 회장
 - 가수 이미자, 김창수 부부
- ⑥ 김 회장 가족(이들 주형, 이만득 (주)삼천리 회장, 부인 김영진, 딸 김자영과 손녀 김서영, 사위 김지수)
 - 테너 강무림과 가수 조영남의 이중창
 - 손녀의 꽃다발을 받고 흐뭇해하는 김 회장
- ⑦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 조의진 가천대 교수 / 김재환 란 스튜디오 회장 / 박혜선 BOX MEDIA 대표
 - 안동일 변호사, 윤영석 SRM 컨설팅 회장, 유흥수 전 국회의원
 -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 친구이자 사돈인 김노경 전 국립암센터 이사장
- ⑧ 손범수, KBS 정용실·윤지영·백승주 아나운서, 김병찬과 함께

방송가 소식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한라에서 방송을, 백두에서 희망을 제주fbc 장봉구 아나운서



몇 달 전쯤 후배인 김태희 아나운서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한마디 한다.

“부장님, 저 WCBA 대상 최우수상이래요!” 전 세계 50여 개 한인 기독교방송의 모임인 WCBA(Worldwide Korean Christian Broadcasters Association)가 매년 주최하는 방송대상에서 작년에 우리가 출품한 작품 ‘주여, 이 땅에 빛을 주소서’가 최우수상에 선정된 것이다.

제주극동방송은 일반 방송과는 다르다. 전신인 아세아방송이 한국에 세워질 당시 이념의 갈등이 심했던 극동지역(중국, 구 소련 등)에 라디오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간 방송 최대 출력인 250KW로 강력한 전파를 쏘아 올려 가깝게는 남부권 전역과 멀리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까지 송출하는 다국적 방송이다. AM 전파의 특성상 낮보다는 밤에 더 잘 들리고 더 멀리 수신되기 때문에 외국어 방송은 주로 심야시간에 진행하고 낮 시간에는 한국어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1973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 가장 큰 가정권인 중국의 개방, 소련의 붕괴 등 40년 세월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세월의 흐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민족의 반쪽인 ‘북한’이다. 제주극동방송은 심야 시간 외국어 방송 중 3시간을 할애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전파 위해 제주극동방송 설립한 지 40년 민간방송 최대 출력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에 송출 매일 방송 들으며 힘을 낸다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보내온 신앙일기와 송신기 현금을 모티브로 다큐드라마 제작 지난 5월 런던에서 WCBA 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

처음 제주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조금은 의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에 극동방송 중에서도 특별한 방송을 하는 특별한 지사로 여겨지는데다 전혀 연구도 없는 내가 제주를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처음 와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느낌은 ‘벽’ 그 자체였다. 방송이라는 게 청취자와의 교감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반응이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주위 선배들의 말과 간간히 보내오는 중국 조선족들의 편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맘과는 달리 하루하루가 힘들어졌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들 즈음, 작년 5월쯤인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를 돕고 계신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 한 통의 편지를 전해 받았다. 편지라기보다는 일기장에 가까운 노트였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다소 유치한 선동 문구가 박힌 노트에 깨알같이 쓴 그분의 일기. 그 분은 매일매일 극동방송을 들으며 그

날그날 방송내용을 적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였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오직 이른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듣고 혹시나 한마디라도 농칠까봐 급히 써 내려간 글씨지만 한 자 한 자에 그분의 갈급함과 안타까운 한숨이 느껴졌다. 먹을 게 없어서, 약이 없어서 죽은 지인의 장례식을 며칠 상관으로 세 차레나 치르면서도, ‘극동방송이 있어 감사하다. 매일 이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낸다.’는 그분의 일기를 보고 있으니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혹여 누가 들을까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남쪽 땅 섬에서 쏘아 보내는 방송을 한줄기 빛으로 여기고 ‘이제 곧 좋은날이 올 거야’라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그분의 모습은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다. 그 날의 기억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북한 지하 교인이 신앙일기와 함께 송신기 교체 현금으로 보내온 위안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지난 2011년 제주극동방송 송신기 교체 모금방송 당시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자신의 신앙일기와 송신기 현금을 전달해 온 이 실화를 모티브로 다큐드라마가 제작되었고 그 작품은 그해 극동방송 방송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WCBA 방송대상 최우수 작품상에 선정되어 5월 초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WCBA 총회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부장님, 저 통일 되면 이 분 꼭 만나고 싶어요!” 기분 탓이었을까. 울먹거리듯 말꼬리를 흐리는 김태희 아나운서의 말에 괜스리 가슴이 먹먹해졌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올해도 150개 학교에서 시행

2011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 3년차를 맞아 올해는 전국의 150개 학교를 찾아가갈 계획이다.

KBS 한국어연구회(담당 성기영 부장)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4월 19일 교안작성회의, 4월 25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언어 예절을 주제로 한 교재 15,000부를 출간했으며 4월 29에는 각 지역 총국 아나운서들과 화상회의를 실시해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5월 9일 강의 시연에 이어 5월 15일 이지애, 전주리 아나운서가 첫 강의를 실시했다.

윤지영, 유지철 아나운서 보도국 앵커 위탁 교육

윤지영, 유지철 아나운서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2기 홍서운 장애인 앵커를 교육했다.

이어 개편을 맞아 새로운 주말 9시 뉴스 앵커로 선발된 보도본부 김도엽 기자에 대한 교육이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지역 아나운서 스타일링 교육 실시

4월 13일 수원 인재개발원에서는 30명의 지역 아나운서가 참가한 가운데 헤어스타일링, 방송메이크업, 의상스타일링 전문화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졌다.

정세진 아나운서 한국PD대상 TV 진행 부문 상 수상



정세진 아나운서가 3월 14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한국PD연합회(회장 이정식) 주최 제25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TV진행자 부문 출연자상을 수상했다. 정 아나운서는 KBS 1TV ‘생방송 세계는 지금’을 맡아 세계 각지의 분쟁과 이슈들을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해 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문화 프로그램에서 예술적 소양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등 공영방송 아나운서다운 면모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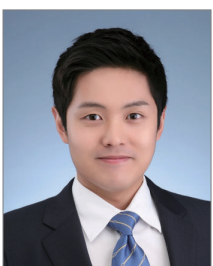
2부 2팀제로 조직 개편

2부 체제였던 MBC 아나운서국이 2부 2팀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아나운서2부에 방송언어연구팀(팀장 이주연 아나운서)과 콘텐츠연구팀(팀장 방현

주 아나운서)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뿐만 아니라 방송 언어와 방송 콘텐츠 연구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3 공채 아나운서 선발



▶박창현



▶박연경



▶임현주



▶차예린

2013 공채 아나운서로 4명의 아나운서가 선발되어 3개월간의 교육 후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창현(남 26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박연경(25세, 동덕여

대 경영학과 졸업), 임현주(27세,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차예린(25세, 한국외국어대 영어통번역학과 졸업) 등 신입 아나운서들은 6월 10일자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희망 TV MC 최기환, 유혜영 등 SBS 아나운서 선행 동참

SBS 희망 TV MC인 최기환, 유혜영 아나운서가 5월 2일 월드비전을 통해 선행에 동참했다.

최기환 아나운서는 지난 3월에 다녀왔던 아프리카 부룬디 루타나 병원의 산모병동 건축을 돕고자 국민연금 홍보대사 활동비 1,000만 원을 쾌척했고, 유혜영 아나운서도 본인의 적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SBS 아나운서팀은 4월 2일 방송된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새로운 기부문화 희망TV-빅워크와 함께 걷는 사람들’을 통해 걷기 기부에 나섰다. 스마트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빅워크’를 깔고 걸으면 100m에 10



▶희망TV 방송 중인 유혜영, 씨스타의 효린, 최기환 원씩 기부금이 적립되어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의복과 휠체어를 선물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혜승, 김민지 아나운서 뉴스 앵커로 발탁

봄 개편을 맞아 이혜승, 김민지 아나운서가 뉴스 앵커로 발탁되었다. 1월 출산 후 복직한 이혜승 아나운서가 ‘뉴스 퍼레이드’ 앵커를

맡아 두 달 만에 방송에 복귀했고, ‘생방송 투데이’에서 MC로 활약하는 김민지 아나운서가 ‘토요 모닝와이드’ 앵커로 투입되었다.

CBS

시각장애아동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비전온> 참여



5월 14일 LG상남도서관에서 열린 '비전온' 양해각서 체결식
CBS 아나운서 13명이 시각장애아동을 위해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는 재능기부에 나섰다.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애정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많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비장애인들의 시력(Vision)을 나눔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꿈(Vision)을 같이 키워나가고자 LG 상남도서관, (주) 인피니

티, (재)CBS가 5월 14일 오후 4시 LG 상남도서관에서 모여 비전온 프로젝트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CBS 아나운서들이 직접 책을 낭독하고 다른 낭독 자원봉사자들의 교육도 담당하며, (주)인피니티는 오디오북 제작 전반을 책임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운영해왔던 LG상남도서관이 콘텐츠 관리와 배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오디오북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합산되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비전온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콘텐츠 접근이 허용되는 LG 상남도서관의 저작권보호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장치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연주 아나운서 진행 '상담 받고 대학 가자' 500회 특집방송

입시 상담 전문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가 500회를 맞았다. 5월 10일 500회 특집방송에서는 2013학년도 수시 합격생을 초대해 합격 비결을 들어보고 3년간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교육 교사와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 봤다.
지난 2011년 5월 30일 시작, 대입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온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http://www.tbs.seoul.kr/tv/Daehakgaja2)에서 할 수 있다.

tbs 영어FM 특집 대학교를 찾아 현장 방송 진행

tbs의 24시간 영어라디오 채널인 tbs 영어 FM(101.3MHz)은 지난 4월 10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아주대 등

서울 및 수도권 대학교에서 방송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풍성한 공연을 선사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1절 특집 <황무지 위에 꽃 핀 노래, 새 봄을 노래하라> 한국PD연합회 제157회 '이 달의 PD상' 수상



극동방송 창사 57주년 기념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황무지 위에 꽃 핀 노래, 새 봄을 노래하라> (연출 최혜심·윤재희·박수훈·송옥석 아나운서, 작가 황인선)가 한국PD연합회 주관 제157회 '이 달의 PD상' 2013년

3월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5월 8일 극동방송 본사 채플실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에 헌신한 선조들의 모습을 찬송가라는 소재를 통하여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로, 당시 찬송가가 애국가, 독립군가, 사회 속의 계몽가로 불렸던 과정을 생생한 증언과 다양한 음원으로 소개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실천운동이 어떻게 애국운동으로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고,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다큐멘터리로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립 25주년 특집 '생명 우리가 만드는 기적' 방송

5월 15일 선교채널이자 생명채널인 평화방송·평화신문 창립 25주년 특집 '생명 우리가 만드는 기적'을 방송했다.
1부는 지승신, 김지현 아나운서, 5부는 박

성호, 김슬에 아나운서 등 최고참과 막내 아나운서가 더블 MC를 맡아 진행했으며, 2부에서 4부까지 펼쳐진 명동 오픈 스튜디오 생방송에도 아나운서들이 대거 참여했다.

제5회 <추억의 콘서트> 개최

5월 24일 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평화방송이 김슬에 아나운서와 탤런트 최재원의 진행으로 다섯 번째 <추억의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는 가톨릭학원이 2008년 아시아 빈민국 구호와 지원 사업을 목표로 설립한 복지단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후원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신입 신동윤 아나운서 음악 방송 투입



PBC에서 계약직으로 신동윤 아나운서를 선발했다.
신 아나운서는 4월 개편에서 라디오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 (오후 6시~7시) DJ를 맡았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간화선看話禪 대법회' 9일간 방송



베트남의 명승 탁낫한 스님이 방문한 간화선 대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채로운 봉축 행사와 특집방송이 있었다.
먼저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 조계사 특설 법회장에서 열린 '간화

선 대중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를 9일간 매일 90분씩 생방송으로 중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를 사용하는 중국 선종만의 독특한 참선수행법으로 간주는 보는 것, 화하는 화두를 의미한다.
또 국내외에서 이틀간 30여 만 명이 참가한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연등축제를 비롯해, 사찰별 교구별 봉축법회, 사찰음악회, 제등행렬 등이 펼쳐짐에 따라 전국의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은 해당 지역의 행사 및 방송을 진행하며 종교 채널 아나운서로서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알림 |

고맙습니다



고성대 100만 원 (주)고성개발 대표



채영신 100만 원



황현정 100만 원

축하합니다

도경원(KBS) 6월 28일 오후 1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가수 장윤정 양과 혼인

정세진(KBS) 6월 21일 오후 7시 강남구 압구정성당에서 은행원과 혼인

김국향(전 KBS) 6월 16일 정녀 현민지 양 혼인

강미정(OBS) 6월 8일 회사원과 혼인

이인숙(전 MBC) 6월 2일 아들 강현석 군 혼인

김상근(전 KBS) 4월 20일 KBS 개그맨인 장남 준현 군 혼인

주의를 포함합니다

반주원(전 MBC) 5월 11일 부친상

이병혜(전 KBS) 5월 1일 시모상

오정남(경남MBC) 4월 30일 장모상

김호성(KBS청주) 3월 19일 모친상

수고하셨습니다

문지애 퇴직 (MBC)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편집자 주 : 제9호 '우리말 다듬기'에서 예문의 인쇄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kt] cut /u/, [km] come /o/, [dAz] does /oe/ 등이다. 자음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doubt[daut], bomber[bmr], sword[s:rd], debut[dbju:] 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접連接 현상'의 발음

전영우(전 KBS-DBS-KBS) 고문, 수원대 명예교수



연음법칙과 절음법칙을 한데 아울러 일컫는 발음법이 연접 현상의 발음이다.
연음법칙(Open Juncture)은 두 음절이 서로 접촉할 때 첫 음절의 받침이 다음

의 의도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간이 절음되고 중간소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어지는 자음이 된소리로 변한다.

- 못자리 [뭏재리] 동짓달 [동짓달]
- 봄바람 [봄베람] 앞일 [앞일]
- 물약 [물락] 학여울 [학녀울]
- 서울역 [서울릭] 수원역 [수원릭]

음절로 옮겨져 발음됨을 이른다. 이 경우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모음과 연결할 때 첫 음절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같은 자음끼리 연결할 때 첫 음절 받침이, 이어지는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는 현상이다.

연음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언어행동의 언어음 단속이다. 프랑스어의 리에종(liaison : 보통 때 발음되지 않는 어말語末의 자음이 다음 어두語頭의 자모음과 만나 발음되는 현상)이나 영어의 링킹(linking : 구 또는 문장 전체를 연결해서 발음하거나 몇 개의 단어를 겹쳐서 소리 내는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 먹어라 [머겨래] 있으니 [이쓰니]
 - 높아서 [노파세] 받으면 [바드면]
 - 먹고 [먹꼬] 들더니 [들떠니]
 - 맞설 [맏짚] 툼밥 [툼뵵]
- 절음법칙(Close Juncture)은 주로 합성어로 된 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합성된 두 말의 의미를 다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話者

그리고 우리말에서 '바둑야'는 그 발음이 연음법칙으로 설명되지만 또 하나 어휘적 상황(Lexical Situation)에 대하여 통어적通語的 상황(Syntactic Situation)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클래식음악감상회 유리디체아카데미 창립 4주년 맞아 정흥숙(전 MBC) 유리디체아카데미 대표



6월 4일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음악평론가 선병철 씨의 해설을 곁들여 DVD로 클래식을 감상하는 유리디체아카데미의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 회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세실내과병원 지하 1층에서 유리디체아카데미, 둘째 목요일에는 라스칼라오페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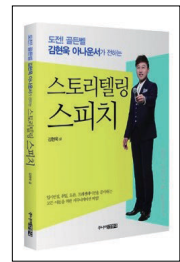
방배동에 국군포로신고센터와 물망초인권연구소 개설 박선영(전 MBC) 동국대 법대 교수, (사)물망초재단 이사장



(사)물망초재단 창립 1주년을 맞아 4월 29일 기념식과 총회를 비롯해 탈북민의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벌인 데 이어 5월 13일 방배동에 국군포로 신고센터(02-585-9963)와 물망초인권연구소를 개설했다.

1977년 아나운서로 입사, 1979년부터 10년간 기자로 활동한 박 회장은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냈다.

2012년 불출마 선언 후 강단에 복귀했으며 물망초재단을 설립해 탈북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스토리텔링 스피치' 출간

김현욱(전 KBS) (주)아나운서 대표, MC

'스토리텔링 스피치' (주니어 김영사)를 출간했다. 김 회장은 이 책에 방송국을 그만두기까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청소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말하기 비법을 담았다.

MBC FM '시선집중' 서 하차, JTBC 보도 총괄 사장 취임 손석희(전 MBC) jtbc 보도 총괄 사장



2000년부터 진행해온 MBC 표준 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하차하고, 5월 13일 중앙일보 종편채널 jtbc 보도 총괄 사장으로 취임했다.

손 회장은 1984년 MBC에 입사, 아나운서 국장을 지내고 2006년 퇴직한 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SBS TV '도전 1000곡' '전설의 DJ' 편 출연

김기덕(전 MBC), 이숙영(전 DBS-KBS), 유영재(전 CBS) DJ



아나운서 출신 DJ로 유명한 세 회원이 4월 21일 방송된 SBS TV '도전 1000곡' '전설의 DJ 편'에 출연해 노래 실력을 과시했다.

김기덕, 이숙영 회원이 준우승, 혼자서 분투한 유영재 회원이 역설적으로 '베스트커플 상'을 받았다.

제33회 차의 날 맞아 차인들의 최대 축제 진행

전우백(전 KBS) (사)한국차인연합회 사무총장



5월 24~25일 운니동 운현궁에서 제33회 차의 날 기념식과 '우리 차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나눔 축제'를 진행했다.

1970년 CBS에 입사한 전 회장은 2004년 KBS에서 정년퇴직 후 2004년 8월부터 한국차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문화예술콘텐츠 경영인으로 변신 전시회서 작품 설명

김범수(전 SBS) (주)코바나콘텐츠 상무



3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크리부 사진전 도슨트로 직접 작품을 설명했다.

2000년 33세의 나이로 입사, 2004년 퇴직 후 방송과 국제 행사의 MC로 활약한 김 회장은 '엔디위홀전'과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주최한 (주)코바나콘텐츠 상무로 기획·홍보를 맡고 있다.

국방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로 방송 복귀

이계진(전 KBS-SBS) 부회장, MC



4월 1일부터 국방FM(96.7MHz)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FM의 대표적인 정책·시사 프로그램인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40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방 관련 이슈, 전문가 초대 등으로 펼쳐진다.

7월부터 Mnet '댄싱9', tvN '대학토론배틀' 진행 맡아

오상진(전 MBC) MC



프리랜서 선언 후 7월부터 고정 프로그램인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tvN '대학토론배틀' 시즌4의 MC로 방송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2월 MBC에 사표를 제출한 오 회장은 3월 22일 SBS TV '뽕큐' 출연에 이어 5월 9일 열린 제49회 백상예술대상도 진행했다.

알림

다음 정례 모임은 8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6.25 63주년 특별기고

자백서 쓰던 날

6.25 전쟁 발발 제1보를 전한 아나운서 위진록 미주방송인협회 고문



위진록(전 KBS) 수필가

1928년 황해도 재령 출생
1945년 평양사범학교 졸업
1947년 7월 서울중앙방송국 성우 특기
1947년 9월 KBS 아나운서 입사
1948년 KBS 제1회 방송국 현상모집 입선
1950년~1972년 유엔군총사령부방송 VJNC 아나운서
1972년 미국 이민
저서: 1979년 '하이 미스터 위'를 시작으로 2011년 '클래식 내 마음의 발전소' 등 수필집 6권 출간

나는 6.25가 터지던 날 공산군 남침 제1보를 방송한 아나운서지만,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하였던 90일간을 숨고 또 숨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다.

국군과 미군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는데다가 가정사정상 약삭빠르게 남하하는 축에 끼어들지 못한 게 이유였다. 서울에 남게 된 이상 나는 일단 방송국에 나가되 내 목소리가 절대로 전파를 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중에 체포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들과 접촉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950년 6월 30일, 방송국으로 가는 길은 그 때까지 다닌 길이 아니었다. 새로운 정복자가 다스리는 낯선 길이었고 불안과 공포가 깔려 있는 길이었다.

정동 방송국은 인민군 병사가 지키고 있었다. 방송과에 들어서자 전부터 좌익 소리를 듣던 키가 작고 통통하여 '최방울'이라 불리던 최용희 아나운서가 나를 맞이했다. 또 한 사람, 저기서 시선이 마주쳐 인사한 것은 레닌모를 쓰고 방송 준비를 하는 선배 평진호 아나운서이다. 뉴스 역량이 독특해 아나운서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으나 그 버릇을 좋아하는 청취자들도 있었다.

방송과장 자리 옆에는 나란히 테이블을 놓고 역시 레닌모를 쓰고 가슴에 번쩍이는 김일성 휘장을 단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평양 중앙방송국의 방울망, 이상벽 아나운서다. 두 사람이 '인민배우' 칭호를 가진 아나운서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다. "위 동무 얘기는 북에서도 듣고 있었우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방울망이었고 좀 연하로 보이는 날카롭게 생긴 이상벽은 "위 동무는 먼저 자백서를 써야 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나는 종이 몇 장과 연필을 받아 들고 며칠 전까지 내 자리였던 책상에서 자백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여 평양사범학교를 다녔으며 사범학교에서는 좌익 서적을 많이 읽어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1948년 방송국 현상모집에 입

선한 다음부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었으며 하지 중장이 한국을 떠날 때 조병옥 박사의 송별사가 끝난 다음, 쇼팽의 장송곡이 방송된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그대로지만 저들 마음에 들도록 요령껏 썼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약 한 시간 후에 불려가자 방울망 아나운서가 손을 내밀면서 "지금부터 위 동무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내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잡은 손을 크게 흔들었다. 나의 고민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탄다면 머지않아 돌아올 사람들을 무슨 낱으로 맞이할 것인가, 저들에게 협력한 배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들과 같이 북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죽어도 피해야 한다.

문득 며칠 전 안국동 조남사 집에서 몇몇 친구가 은밀히 만났을 때 장민호가 "연극동맹에서 슈프레이코루

피난 못 가고 인민군 점령 정동 방송국으로 출근했더니 전부터 좌익 소문 듣던 '최방울'이 나를 맞아

레닌모가 '위 동무는 내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십시오'에 경악

부역 아나운서 오명으로 동료 맞을 수 없어 연극동맹 활동 핑계 대고 극적으로 탈출, 숨어 지내다

9.28 서울 수복 제1보를 당당한 목소리로 방송

(구호) 반을 짜서 일선에 나가는데 너, 같이 갈래?"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다음날 아침 평양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 직원이 모여 방송협회 강당에서 직장대회를 열 때, 나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사회자를 불렀다. "동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연극동맹 동지들과 일선으로 출동할 사람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기보다 인민군 전사들과 같이 싸우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동무! 저를 일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말에 들뜬 목소리의 사회자가 "동무! 어서 떠나십시오!"라고 외치는 순간, 열렬한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혹시 방울망이나 이상벽이 쫓아 나오는 건 아닌지 뒤를 돌아보며 길을 재촉하였다. 그것은 나의 목숨을 건 일생 일대의 연극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 마이크 앞에 앉는 위기를 면하고 그 해 9월 28일 마침내 가슴을 펴고 당당한 목소리로 감동적인 서울 탈환의 제1보를 방송할 수 있었다.

Zoom-in 전영우, 이규항, 김상준 KBS 한국어연구회 30주년의 산 증인들

한국어 발전 과정에서 아나운서들이 중요한 역할 담당해왔다

KBS 한국어연구회가 남긴 건 하나의 '문화재', 아나운서들이 국어순화에 적극 나서야



▶KBS 한국어연구회 30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한자리에 모인 이규항 회원, 전영우 고문, 김상준 감사 (왼쪽부터)

지난 4월 23일 KBS 한국어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역대 한국어연구회장 중 전영우(이하 '전'), 이규항(이하 '이'), 김상준(이하 '김') 전 실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KBS 한국어연구회의 의미와 이 시점에서 '우리말'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았다.

뜻 깊은 자리에서 큰 상을 받으신 걸 축하합니다.

전: 후생가의(後生可畏)라고 할까요? 저는 그저 단초(端初)를 마련했을 뿐이고, 후배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회가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는 곳은 한글학회 밖에 없던 시절에 민재호, 이계원, 장기범 선배가 지금 어문규범에 있는 경우, '의'의 발음 등을 도제교육으로 알려주셨어요. 해방 이후 우리말을 지키고자 노력한 아나운서실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김: 한국어연구회의 알뜰한 기획과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믿고 맡겨주신 KBS 경영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R&D 분야에 대한 30년의 지원은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KBS 한국어연구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나요?

전: 방송통폐합 후 제가 KBS 아나운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간부회의에서 이원홍 사장이 '방송용어연구회'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아나운서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곤 명칭을 '한국어연구회'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의 말이 한국어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대 초, 국민의 눈과 귀를 텔레비전에 고정시키기 위해 컬러 TV가 도입이 됐습니다. 시청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외부 진행자가 대거 투입되다 보니 방송언어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시청자상담실에 국어를 사랑하는 분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요. 실상은 그 방패막이로 탄생했지만, 한국어연구회가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영우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이 '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김: 1982년 7월 30일로 기억이 납니다. 회의에 다녀오신 전영우 실장님께서 저와 이계원 아나운서를 부르셨습니다. 둘 다 국문학을 전공했으

니 한국어 연구에 관한 기획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계원 아나운서는 가을 개편에서 방송을 많이 맡게 되면서 참여하지 못 했고, 김영소 아나운서가 사업과 예산을, 제가 간사로서 연구·교육·출판을 담당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방송과 표준어 기반의 방송언어 교육기법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사명감도 생기더군요.

세 분 모두 국어 전문가인데,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다 1954년 KBS 아나운서가 된 저는 자연스럽게 방송언어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아나운서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 그것이 '스피치'더군요. 특히 1962년 이 의미가 있는데, 그 해에 '표준한국어발음사전'(KBS방송사업단)을 유인물 형태로 펴냈고, '화술의 지식'(을유문화사)을 발간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유럽스피치교육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국문학 석사과정을 마쳤

선배들이 만든 발음과 표기에 관한 이론이 한국어연구회로 이어진 것

80년대 말 한·중수교 이전부터 중국 동포 아나운서 대상 교육 사업 펼쳐 1983년 말 부산에서 시작된 중·고 전국순회 국어순화교육 지금도 이어져

습니다. 이후 1967년에 중앙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 1989년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국어학 박사를 받았지요.

이: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아나운서가 된 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방송인으로서 유일하게 1970년부터 1987년까지 문교부에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개정 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KBS 아나운서실을 대표해서 10여 년간 공청회에 참석했고 1987년에는 검토 위원으로서 국어학자들과 함께 어문규범을 제정하느라 고민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지요. 이후 국립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 심의도 했습니다.

김: 저는 1972년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3월부터 1975년 11월까지 서울 배문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국문학도로서 쌓은 경력들은 한국어연구회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지요.

한국어연구회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셨나요?

전: 1981년에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어발음사전과 스포츠용어사전을 내겠다고 이원홍 사장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KBS 한국어연구회를 통해 나중에 다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어연구회가 남긴 것들은 하나의 '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는 음성언어의 산실이 KBS 아나운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984년에 제가 한국어연구회 회장이 됐지만 그 전부터 연구회 일을 해왔고 퇴직할 때까지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부터 중국 동포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벌인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 제가 교육 사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980년대 후반에는 중국의 연변, 하얼빈, 베이징에서 조선어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표준어 교육을 통한 또 다른 영토의 확장이라는 사명감이 있었지요. 이것이 일본,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KBS에서 활동하는 성우, 기자, 프로듀서, 개그맨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중고 교사를 위한 전국순회 국어순화교육이 1983년 말부터 부산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 1999년에 수원대학교에서 정년퇴임했지만 화법과 관련해서 기회가 닿으면 강단에 섭니다. 지금도 서울신학대학교 외래 강사로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하러 나가고, 바른말쓰기 실천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시작이 '소리'라는 것을 알고, '국문'이 아닌 '국어' 교육을 받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방송언어와 표준 발음 등의 책을 펴내면서 선배님들의 뜻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이규항 실장이 어문규정을 만드는 것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 전에 저도 아나운서실장으로 방송윤리위원회, 문교부 국어조사연구회에서 표준어(말) 사정위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아나운서'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바른말 고운 말' 프로그램을 보면 감수에 '국립국어원'이라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면 아나운서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배들을 믿습니다.

이: 한국어연구회 발족 전부터, 어문규범이 생기기 전부터 아나운서실에서 해온 일들이 많습니다. 선배들이 만든 발음과 표기에 관한 이론들이 한국어연구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문규범이 만들어질 때 '디귤'을 [디기]로 '맛있다'를 [마신타]로 발음하는 것, 모두 KBS 아나운서실에서 관용어로 인정하는 것이 좋고 해서 받아들여졌지요. 이렇게 과거에는 외부에서 실용발음을 아나운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은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1988년 1월 19일에 문교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전영우, 이규항 선배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시일 이전에는 '여보세요'가 사투리고, '여보셔요'가 표준어, 대담도 '네'는 사투리 '예'만 표준어였습니다. 그것을 아나운서실에서 KBS 한국어연구회 이름으로 인정해도 좋다고 공문을 보냈고, 아나운서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요.

올해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데, '한국어'의 발전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어문규범에 나와 있는 '총칙'을 아십니까?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는 내용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우리 국어 수준이 '초급'에 머물러 있어 걱정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말의 80%를 차지하는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고급 언어를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영어 교육에 열중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읽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김: "우리는 국어를 정도를 지나치게 모르고, 한자는 전혀 모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문생활의 큰 맹점이다."라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 전영우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국어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음성언어는 곧 방송언어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선후배 아나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글/ 유혜진 객원기자 (eternityjw@naver.com)

www.kofwst.org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주년기념 총서 시리즈 발간!

제1권 「원자력 트릴레마(까치글방)」
여론·커뮤니케이션·해법의 모색

제2권 「인터넷 바다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 8월 출간예정

제3권 「사용후핵연료
SF 폐기물인가 자원인가」
- 8월 출간예정



Forum 01

2013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주년 학술대회

- 주제 : 과학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 일시 : 2013. 11. 7(목) 오후 1시 30분 ~ 6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Forum 02

아시아 여성 과학기술 포럼 (AWESF 2013)

- 주제 :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 일시 : 2013. 11. 12(화) ~ 13(수)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